

建築士의 새로운 비전

New Vision of Architects

金熙春 / (주)정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서울대 명예교수

by Kim, Hee - Chun

■ 새한국 건설의 과제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국내외로 새로운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때라고 인식하고 있다.

우리는 4만세기동안에 현대산업사회의 前期 過程을 거치지 않고 後期 産業社會로 경중 뛰어넘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점진적으로 이러한 변화를 수용할 태세를 갖추지 못한 채 여러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현재 우리 협회가 당면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은 이러한 차원에서 파생되는 갈등이라고 보아야 하겠다.

정치·경제·교육·과학기술·문화 그 어느 하나도 이 급격한 산업화 현상과 상관없는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의 해소에는 우선적으로 정치형태의 민주화, 문화의식의 현대화 등이 중요한 과제가 된다. 또한 고도성장은 忍耐性向의 방향에서 滿足性向의 방향으로 바뀌어 절약에 대한 이념은 사라지고 消費志向으로 가고 있다.

다음은 국제사회의 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도 큰 과제의 하나라고 보겠다.

국경이 없는 세계로 가고 있는 이때 전통적 국가체계의 틀은 없어지고만 것이다. 우리는 우리식대로 산다는 주장은 있을 수 없으며, 그러한 주장은 오히려 「독불장군」식 존재로 용납될 수 없을 것이다.

문화의 창조, 과학기술의 발달, 환경의 보호 이러한 문제들은 모든 사람들이 보다 자유로운 인간으로서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을 때 이 과제들의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각자가 마음 속으로 힘을 내서 뛰어야 한다고 믿을 때 새로운 역사가 창조되어 갈 것으로 생각된다.

금번 새로 출범하는 정부는 새韓國 건설이라고 하는 명제를 내세우고 있다. 그 내용에는 경제문제를 위시하여 정치문제, 교육문제, 문화문제 등 여러가지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은 서로 연결고리를 갖고 있어 하나하나의 완전 해결은 불가능하며 국민전체의 의식개혁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바탕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

이에 환경조성을 창조하는 건축사의 새로운 비전을 요구하게 된다.

건축과 관련이 있는 문제들 환경, 교통, 주거, 특히 衣食住생활의 개선 등 여러가지가 있다.

21세기를 맞아 통일된 국가, 개방된 세계, 자유와 번영과 행복이 있는 우리사회의 실현을 위하여 오늘의 새로운 변화를 올바로 인식하고 우리의 넓은 체제와 관습과 의식구조를 새롭게 해야 한다.

■ 建築概念의 變貌

20세기의 대표적인 특성은 技術文明에 있다. 利器로서의 기술문명은 인간의 생활양상에 물질의 풍요로움을 주었고 또한 크게 변모시켰다. 이러한 물질적 풍요로움의 결과 일반적으로 팽창된 물리적인 양은 예기치 못했던 생활의 지해요소로 등장하게 되었다. 인간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제어능력을 훨씬 상회하는 양의 팽창은 환경공해라고 하는 새로운 문제를 야기시킨 것이다. 이러한 환경의 악화는 (1)인구의 증가 (2)도시화 (3)기술혁신 등에 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러한 요인에 의한 환경문제가 갖는 근본적인 위기는 그것이 궁극적으로 인류의 생태적 존재가능성을 파괴하고 만다는데에 있는 것이다.

自然과 人間의 조화가 깨질 때 生態系(Eco-system)의 파괴는 地球自體의 종말을 의미한다.

인구증가와 환경오염, 공업생산이 현재의 추세대로 계속된다면 지구상에 큰 이변을 초래 할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환경문제와 결부된 이러한 시대상황은 건축분야에 있어서도 과거와는 다른 관점에서 그 본질을 요구하게 되었으며, 아울러 그 분야의 종사자로서의 건축사의 개념 및 자세 역시 20세기 전반과는 다른 각도로 파악되는 것이다.

20세기적인 기술의 바탕위에 「用의 美」를 구현하고자 하여 1930년대를 전후하여 세계적으로 팽창했던 소위 機能主義, 國際主義 격 식이 그후 오늘날까지 세계를 풍미해 온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획일적인 수법으로서 이미 현대적인 제반문제의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고조되고 있다. 그리하여 現代建築은 흔히 「混沌」의 개념으로 표현되는데 「摸索의 多樣性」이라고 하는 표현이 더욱 정확할 것이다.

물론, 현대건축이 갖는 「混沌」의 근원은 극히 복합적인 것이다. 하지만 대략 이와 같은 요인들에 의해서 모색되고 있는 현대건축의 추세를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우리만큼 의식주생활에 있어서 낭비가 많은 나라는 없을 것이다. 낭비 자체도 문제이지만 이젠 쓰레기를 버릴 장소도 없다.

食衣生活을 담은 그릇 즉 建築에 있어서도 우리의 생활에 유용하게 쓰여질 건축공간은 각종 수장물과 가구로 점유되고 만다. 일반주택에서 우리가 예측했던 안락한 건축공간은 찾아 볼 수가 없다. 더 나아가 쾌적한 환경유지에 필요한 자연의 외부공간도 쓰레기로 쌓여만 가고 있다.

이 문제해결은 건축사의 힘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며 모든 국민이 낭만적이고 인정이 풍기는 아름다운 과거의 封建的 의식구조에서 깨어나 개방된 국제사회 속에서 현대인으로서의 생활을 영위하는 자세에서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제기는 건축사에 의해서 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본다.



첫째로는 建築 및 都市空間이 갖는 가능성을 추구하는 관점이다. 정보사회로서의 현대사회는 그 질과 양적 상황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건축 및 도시공간에 대해서 이러한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建築空間을 圓形的인 것으로 보지않고 융통성(Flexibility)이 풍부한 가변적인 것으로 보는 관점인 것이다.

건축공간은 인간생활의 부단한 성장과 변혁의 요구에 적합하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간주한다.

둘째로는 標準化(Standardization)에 의한 건축공간의 部品化의 추구 경향이다. 이러한 경향 역시 현대가 갖는 제반의 환경여건에 기인한다. 즉 인간의 폭등하는 居住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시간에 대량의 거주환경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마치 공업생산품들이 부품공정을 거쳐 완성되듯이 부품화되고 생산된 單位建築空間이 조합됨으로써 건축물이 완성되게 된다.

우리는 2백만호 주택건설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수도권 신도시개발사업 등에서 현장시공으로 인한 부실공사라는 쓰라린 경험을 얻고 있다.

建築物는 建設된다기보다 생산되는 것으로 봐야 할 것 같다.

셋째로는 새로운 技術의 모색이다. 플라스틱, 합성수지 등 다양한 인공재료의 건축적 이용가능성과 지역특성을 살릴수 있는 그 지역의 원재료(Raw Material) 발굴 등을 모색하여야 한다. 철의 건축적인 이용이 현대적인 建築美學의 탄생에 크게 기여한 바 있는 것과 같이 새로운 재료의 개발은 새로운 건축수법 및 미학의 구형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네째로는 도시 속에서의 인간의 生存生態를 전혀 새로운 거시적인 구조체계(Mega Structural System)의 마련으로 재편성하자는 것인데 환상적이지만 환경의 위기에 처한 現代都市生態의 미래에 대한 시사적인 추세라고 본다.

Mega Dome 구조체로서의 도시, 일종의 橋梁都市, 海上都市, 立體都市 구조 등 다양한 案들이 제시되고 있다.

다섯째로는 체계화된 조직건축 System으로 소위 Total Design 개념으로 불려 오는 것으로 건축적인 재작업을 발상의 단계에서부터 수립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작업의 진행을 각 개인의 주관적 판단보다는 조직적이고 체계화된 합리적 분석에 그 기본을 둔다. 두뇌의 분석능력을 초월하는 복합성이 점차로 현대건축에 요구되고 있으므로 그러한 문제의 적절한 해결을 위해서는 組織과 分析技法 Computer 등이 도입되어야 한다.

끝으로 의식주생활의 개선 등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우리만큼 의식주생활에 있어서 낭비가 많은 나라는 없을 것이다. 낭비 자체도 문제이지만 이젠 쓰레기를 버릴 장소도 없다.

食衣生活을 담은 그릇 즉 建築에 있어서도 우리의 생활에 유용하게 쓰여질 건축공간은 각종 수장물과 가구로 점유되고 만다. 일반주택에서 우리가 예측했던 안락한 건축공간은 찾아 볼 수가 없다. 더 나아가 쾌적한 환경유지에 필요한 자연의 외부공간도 쓰레기로 쌓여만 가고 있다.

이 문제해결은 건축사의 힘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며 모든 국민이 낭만적이고 인정이 풍기는 아름다운 과거의 封建的 의식구조에서 깨어나 개방된 국제사회 속에서 현대인으로서의 생활을 영위하는 자세에서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이 문제제기는 건축사에 의해서 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고 본다.

이제 제반 시대상황의 변모에 의해서 요구되는 현대건축의 추세 속에서 건축사의 본연 및 자세가 과거와는 다른 개념의 것으로 그 변화가 요청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선 건축사에게 있어서 가치관의 확장을 요구하게 된다.

확장의 의미는 가치관의 自我志向性에서 他我志向性으로의 전환을 뜻한다.

그렇게 하여 건축사는 일개 技術人·藝術人이 아닌 사회적 지도자의 위치로 격상될 것이다.

역사는 과거로 되돌아가지 않는다.

우리는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21세기를 향해 오직 전진할 뿐이다.